

순천시-일본 이즈미시 '흑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 공동추진 합의

허석 순천시장·시이노키 신이치 이즈미시장, 신년 영상회의 글로벌 사진 공모전·화보집 제작·서식지 등 담은 영상 제작

순천시가 자매도시인 일본의 이즈미시와 '흑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허석 순천시장과 일본 이즈미시 시이노키 신이치(椎木 伸一) 시장은 최근 영상회의를 통해 새해인사를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된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였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순천시가 추진 중인 '흑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에 대한 공감을 갖고, 이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허석 시장이 "이즈미시를 시작으로 순천만 습지, 복한 문적

습지를 통해 러시아로 이동하는 흑두루미의 하늘길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이즈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시이노키 신이치 시장은 "습지보전에 있어 대선배인 순천시의 좋은 제안에 감사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함으로써 성사되었다.

순천시는 이날 합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즈미시와 함께 흑두루미 글로벌 사진 공모전, 흑두루미 화보집 제작과 흑두루미 서식지 등을 담은 영상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즈미시는 오는 10월에 예정된 제14차 람사르총회에서 람사르 습지도시인증을 앞두고 있으며, 허석 시장은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 초대회장을 맡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보성차밭, 5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 선정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경관... 대한민국 대표 힐링 여행지



보성 차밭이 5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 대표 관광지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선정

하고 있으며, 이번에 5회째를 맞는다.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은 △2019~2020년에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 △지자체 추천 관광지, △최대 방문 관광지 중 선별한 198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점검, 3차 최종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보성 차밭은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영화와 드라마, CF의 촬영지 등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 50선',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선' 등에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인지도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각광받는 관광지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 연말 제암산 자연휴양림에 있는 전남권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센터가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것에 이어 이번 보성 차밭이 5회 연속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됨으로 보성군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성군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 매력을 높이고, 풍부한 콘텐츠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2022 한국 관광 100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www.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고흥군,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선정

3년 연속 수상...귀농귀촌1번지 입증
고흥군은 지난 1월 28일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중앙일보가 공동후원한 2021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귀농귀촌도시 부문'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전국 지자체 및 기업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영 실적 및 브랜드 가치, 고객만족도,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을 평가해 브랜드를 선정했으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고흥군이 유일하다. 군은 귀농·어·귀촌 유치실적,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귀농귀촌행복학교 운영, 귀향청년 정착지원금 지원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고흥군은 민선7기 핵심 목표인 '고흥 미래비전 1·3·0 플랜'을 조기에 달성하고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금년에는 고흥 더하기 5대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그 내용은 ▲소득 더하기로 군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매력 더하기로 고흥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며 ▲온기 더하기로 따뜻한 맞춤형 실현 ▲활력 더하기로 정주여건 조성 과 인구감소를 제로화에 박차를 가하고 ▲믿음 더하기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여수시,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75대 지원...한 대당 '3750만 원'

여수시가 미세먼저 저감과 수소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75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차종은 현대 넥쏘이며, 우선 지원이 8대, 일반이 67대로 한 대당 3,7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다자녀, 취약계층, 생애 최초 차량구매, 택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여수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기업·법인·단체는 본

광양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 5일까지 651개 품목 원산지 허위 표시·미표시 등 점검 나서

광양시는 설을 앞두고 1일부터 5일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및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시,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 명예감시원, 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단속이 나섰다. 농축산물 단속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특히 설을 맞아 농축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등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5일 시장, 상설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며,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순천시, '농식품 수출 165억 달성' 총력

우수 농식품 신규·신흥 해외시장 개척·품목 다변화로 글로벌 식탁 점령
순천시가 2021년 농식품 수출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농식품 수출 165억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순천시는 올해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신선 농산물 수출 농업인에 대한 수출 촉진비 지원, ▲수출상품 포장재·기자재 지원, ▲중국 전자상거래 입점 구축,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등 아낌없는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신흥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국 다변화와 수출 대상국의 소비 트렌드 및 선호도를 분석하여 신규 수출유망 품목 발굴을 통한 수출



수출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순천시의 주요 수출 품목은 신선농산물 배, 단감, 참다래, 토마토, 오이 등과 가공식품 장류, 소스류, 김치류, 반찬류, 합조가공품, 매실가공품, 누룽지, 떡류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 미주, 중국, 동남아 지역이다.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산구